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성숙*, 문소정**, 노희진**†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Influencing Factors up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Sung-Suk Bae*, So-Jung Mun**, Hie-Jin Noh**
Dep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Dep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분석 한 후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4년제 대학 3개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3, 4학년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도 일부 항목에서 존재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남성, 연령증가, 고 학점 집단, 희망 월 급여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학교와 성적,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는데 전공에 불만족하는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20%로 낮은 편이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진출로의 모색이 필요하며,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긍정적 관련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고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survey was conducted to 243 dental hygiene students in college located in South Korea, analyzed by t-test,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between male and femal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was higher with increasing age and their credit, but showed the opposite trend in expected salary. Career identity was related to credit and the satisfaction in major, students dissatisfied with major recorded higher sense of career identity.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ffect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explanatory power was about 20%. It will be necessary encourage the students social advance in many different fields, research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career identity,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students

Received 1 June 2014, Revised 1 July 2014

Accepted 20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Hie-Jin Noh (Dep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Email: nohh14@yonsei.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 후 자기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수준은 개인적 성향이나 본인이 선택할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2011년 현재 약 87%로 취업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1].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의 폭이 일반 대학생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대학생활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과의 교육내용을 따르는 일에 열중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부분은 병원에 취업하게 되는 데[1], 최근 4년제 학부과정의 늘어나고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진출분야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병원 외에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2] 이에 상응하는 취업준비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련 연구는 주로 원하는 취업기관, 연봉, 근로조건 등을 설문조사 하거나 취업관련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등 [2-5]으로, 취업 준비에 대한 구체적 준비행동이나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고민과 확신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룬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진출로 진입을 위한 취업준비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활용능력과 적극적 참여의지 등을 주로 평가할 수 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자 스스로 진로모색을 위한 활동과 의사결정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다[6].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준비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데, 취업준비생의 취업에 대한 심리적 확신과 구체적 활동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도구이다

[7]. 최근에는 이러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8, 9].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그리고 취업준비행동의 상호 관련성이 여러 연구[8, 10, 11]를 통하여 검토된 바 있으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을 검토한 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까지 국내 4년제 3개 대학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3학년과 4학년 이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243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교, 학년, 성적, 희망 월 급여, 전공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령의 경우 20세 이하와 21-23세 이하, 그리고 24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적은 본인의 평량 평균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4.0이상, 3.5-4.0미만, 3.0-3.5미만, 3.0이하로 구분하였다. 희망 월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2), 만족(19), 보통(125), 불만족(76), 매우 불만족(17)으로 구분하여 조사 한 후 매우 만족과 만족을 “만족”으로 보통을 “보통”으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Range	Number	%
Sex	male	16	6.58
	female	227	93.42
Age(year)	≤20	35	14.46
	21-23	185	76.45
	≥24	22	9.09
University	A	75	30.86
	B	88	36.22
	C	80	32.92
Grade(year students)	3 rd	129	53.09
	4 th	114	46.91
Credit(point)	≥4.0	16	3.78
	3.6-3.9	64	27.12
	3.1-3.5	101	42.80
	≤3.0	55	23.31
	≥300	50	21.01
Expected salary (10,000won)	250-299	51	21.43
	200-249	105	44.12
	≤199	32	13.45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93	38.91
	normal	125	52.30
	dissatisfaction	21	8.79
Total		243	100

2.1.2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취업준비행동[12]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은 은 모두 6개 항목 40개 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 ‘공식적 직업탐색’ 6문항, ‘비공식적 직업탐색’ 10문항, ‘예비적 직업탐색’ 6문항, ‘적극적 직업탐색’ 10문항, ‘취업준비노력’ 6문항, ‘취업준비강도’ 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평가하였다(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각 하위척도별 Cronbach α 값은 공식적 직업탐색 0.769, 비공식적 직업탐색 0.820, 예비적 직업탐색 0.797, 적극적 직업탐색 0.763, 취업준비노력 0.920, 취업준비강도 0.813이었다.

2.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13]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은 모두 5개 항목 25개 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는 ‘직업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자기평가’ 5문항으로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Cronbach α 값은 직업정보수집 0.779, 목표

설정 0.804, 계획수립 0.710, 문제해결 0.773, 자기평가 0.784로 나타났다.

2.1.4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14]는 모두 3개 항목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척도는 ‘자신의 이해’ 7문항, ‘능력 자신감’ 2문항, ‘직업정보의 이해’ 9문항으로 총 3개 하위요인에서 18문항으로 역 문항을 나타내어 점수가 낮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이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어 진로정체감형성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 코딩하여 점수화 하고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로 하위척도별 Cronbach α 값은 자신의 이해 0.767, 능력자신감 0.815, 직업정보의 이해 0.799였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의 연구내용에 따라 SPSS 20.0 Ver. (SPSS Inc., Chicago)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수준은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연령, 학년, 성적에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었다.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취업준비행동을 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의 증가는 공식적 직업탐색, 비공식적 직업탐색, 취업준비노력, 취업준비강도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p<0.05). 학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3학년 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직업탐색과 취업준비 노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성적이 4.0 이상

인 학생들은 예비적 직업탐색(3.13±1.07)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공식적 직업탐색(3.60±0.70), 적극적 직업탐색(3.47±0.94)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Table 2>.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별, 연령, 성적, 희망 월 급여, 직업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검토되었다. 남성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보다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파악되었고, 특히 자기평가(3.95±1.17)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조사되었다($p<0.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데, 특히 계획수립은 타 연령대 보다 24세 이상에서 4.02±0.9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p<0.05$). 성적의 경우 4.0이상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는 학생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p<0.05$). 한편, 희망 월 급여의 경우 직업정보 수집 외의 모든 하부요인에서 150-200만원 미만의 월 급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전공만족도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상관성이 검토되었다($p<0.05$)<Table 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성적,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적은 모든 항목에서 4.0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직업정보의 이해(4.81±0.96) 또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p<0.05$). 전공에 대해 불만족 하는 집단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p<0.05$)<Table 4>.

3.4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련성

본 연구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설명력은 약 20.8% ($R^2=0.208$)로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취업준비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파악한 결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p<0.05$)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를 파악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0.771)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취업준비행동과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하부요인인 공식적 직업탐색 2.49±0.87, 비공식적직업탐색 3.22±0.92, 예비적 직업탐색 2.93±1.00, 적극적 직업탐색 3.01±0.76, 취업준비노력 2.05±1.01, 취업준비강도 1.77±0.98로 각각 6점 만점에 대하여 중간점수인 3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준비에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대부분 중간점수를 넘지 못하였으나, 이후로는 취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취업 장벽이 높아져 중간점수를 넘어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6 재인용]. 그러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현재 졸업 후 본인이 원한다면 대부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하여 취업에 대한 위기나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1]. 또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이나 실습내용만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는 치과병·의원으로 취업 진로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취업을 위한 교외 활동 등 추가의 노력을 하는 학생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스트레스가 올라감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0].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는 점차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Table 2>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ange	Formal job exploration behavior	Informal job exploration behavior	Preparatory job exploration behavior	Active job explo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efforts	Career preparation intensity
Sex [†]	male	2.63±1.01	3.39±0.92	3.01±1.11	2.94±0.93	2.31±1.27	1.84±1.29
	female	2.48±0.87	3.21±0.92	2.93±0.99	3.02±0.75	2.03±0.99	1.76±0.95
	t	0.62	0.79	0.32	-0.37	1.07	0.33
	p-value	0.34	1.00	0.49	0.19	0.40	0.07
Age(year) [‡]	≤20	2.28±0.83	3.01±0.94	2.69±1.16	2.95±0.58	1.66±0.67	1.53±0.73
	21-23	2.49±0.86	3.20±0.91	2.92±0.94	2.99±0.77	2.06±0.99	1.76±0.97
	≥24	2.89±0.92	3.69±0.82	3.46±1.09	3.26±0.89	2.64±1.34	2.20±1.26
	F	3.47	3.91	4.18	1.34	6.45	3.31
	p-value	0.03**	0.02**	0.02**	0.26	0.00**	0.04**
Grade(year students) [†]	3 rd	2.46±0.84	3.13±0.92	2.84±0.96	2.91±0.67	1.93±0.90	1.72±0.92
	4 th	2.53±0.92	3.32±0.91	3.04±1.04	3.13±0.84	2.18±1.12	1.82±1.04
	t	-0.61	-1.57	-1.52	-2.31	-1.88	-0.76
	p-value	0.33	0.87	0.41	0.02*	0.02*	0.21
Credit(point) [‡]	≥4.0	2.58±0.86	3.60±0.70	3.13±1.07	3.47±0.94	2.36±1.14	1.94±0.91
	3.6-3.9	2.50±0.82	3.38±1.05	3.17±1.08	3.16±0.70	2.08±1.06	1.60±0.87
	3.1-3.5	2.47±0.90	3.14±0.87	2.88±0.93	2.94±0.73	2.00±1.05	1.85±1.05
	≤3.0	2.47±0.89	3.01±0.86	2.70±0.98	2.86±0.74	2.02±0.88	1.71±0.93
	F	0.08	2.88	2.50	3.98	0.60	1.11
p-value	0.97	0.04**	0.06**	0.01**	0.61	0.35	
Expected salary [‡] (10,000won)	≥300	2.55±0.98	3.28±1.11	3.27±1.13	3.14±0.89	2.23±1.24	1.82±1.09
	250-299	2.51±0.86	3.29±0.91	2.85±1.18	3.05±0.77	2.05±0.89	1.73±0.96
	200-249	2.41±0.84	3.16±0.85	2.86±0.83	2.93±0.68	2.01±0.97	1.77±0.95
	≤199	2.55±0.98	3.19±0.84	2.88±0.78	3.04±0.70	1.94±0.95	1.75±0.91
	F	0.27	0.32	2.25	0.94	0.68	0.08
p-value	0.84	0.81	0.08	0.42	0.56	0.97	
Satisfaction in major [†]	satisfaction	2.56±0.93	3.37±0.89	2.99±0.98	3.10±0.86	2.08±1.09	1.70±0.89
	normal	2.46±0.84	3.10±0.88	2.88±1.02	2.93±0.66	2.01±0.95	1.80±1.03
	dissatisfaction	2.43±0.78	3.20±1.17	3.09±0.97	3.01±0.71	2.20±1.05	1.86±0.96
	F	0.42	2.36	0.56	1.59	0.36	0.34
	p-value	0.66	0.09	0.57	0.21	0.70	0.71
Total		2.49±0.87	3.22±0.92	2.93±1.00	3.01±0.76	2.05±1.01	1.77±0.98

[†]Independent t-test, *p<0.05

[‡]One-way ANOVA, **p<0.05

[6], 3년제 치위생과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3세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령증가에 따른 취업행동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3].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목표 설정시기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은 주로 2학년 때, 그리고 4년제 대학 학생들은 4학년 때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검토되었다 [15].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연령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업이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취업과

관련된 고민과 노력이 증가하게 되어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업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구체적 취업준비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여부에 대하여 전공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의학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75.3%로 남학생의 24.7% 보다 높게 조사되어 여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를 남학생에 비하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취업에 대비하여 학원에 다닌 경험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5]. 그러나 취업준비행동에 대하여

<Table 3>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ange	Career relating data gathering	Setting an objective	Making a plan	Solving a problem	Self evaluation
Sex [†]	male	3.61±1.17	3.85±0.89	3.88±1.06	4.03±1.06	3.95±1.17
	female	3.63±0.86	3.75±0.85	3.58±0.79	3.84±0.79	3.84±0.84
	t	-0.09	0.46	1.41	0.87	0.36
	p-value	0.07	0.72	0.08	0.07	0.04*
Age [‡] (year)	≤20	3.61±0.93	3.77±0.88	3.53±0.82	3.82±0.75	3.76±0.81
	21-23	3.62±0.86	3.71±0.82	3.56±0.79	3.82±0.81	3.81±0.86
	≥24	3.78±1.05	4.13±0.95	4.02±0.92	4.17±0.87	4.23±0.90
	F	0.38	2.41	3.34	1.93	2.32
	p-value	0.68	0.09	0.04*	0.15	0.10
Grade(yea students) [†]	3 rd	3.63±0.84	3.71±0.78	3.50±0.74	3.72±0.75	3.72±0.81
	4 th	3.63±0.93	3.81±0.92	3.71±0.88	4.00±0.84	3.98±0.89
	t	1.24	1.36	1.39	1.25	1.22
	p-value	0.25	0.09	0.05	0.22	0.29
Credit(point) [‡]	≥4.0	3.98±1.22	4.10±0.90	4.01±0.99	4.23±0.85	4.29±0.92
	3.6-3.9	3.85±0.85	4.05±0.71	3.91±0.73	4.14±0.78	4.16±0.80
	3.1-3.5	3.52±0.76	3.64±0.88	3.42±0.79	3.71±0.75	3.64±0.80
	≤3.0	3.46±0.97	3.52±0.86	3.43±0.80	3.68±0.85	3.70±0.92
	F	3.29	5.39	7.25	5.85	6.79
p-value	0.02**	0.00**	0.00**	0.00**	0.00**	
Expected salary [‡] (10,000won)	≥300	3.60±0.77	3.73±0.89	3.50±0.82	3.78±0.85	3.80±0.92
	250-299	3.57±0.75	3.62±0.74	3.45±0.75	3.77±0.72	3.71±0.79
	200-249	3.52±0.84	3.71±0.86	3.58±0.67	3.70±0.82	3.76±0.69
	≤199	3.86±1.19	4.10±0.97	3.99±0.97	4.20±0.90	4.20±1.05
	F	1.51	3.71	5.27	4.06	3.88
p-value	0.21	0.01**	0.00**	0.01**	0.01**	
Satisfaction on major [‡]	satisfaction	3.37±0.88	3.70±0.72	3.58±0.51	3.73±0.58	3.82±0.62
	normal	3.49±0.77	3.57±0.81	3.47±0.75	3.70±0.77	3.72±0.80
	dissatisfaction	3.85±0.97	4.01±0.87	3.75±0.93	4.06±0.86	4.00±0.97
	F	5.58	7.63	3.20	5.32	3.05
p-value	0.00**	0.00**	0.04**	0.00**	0.04**	
Total		3.63±0.88	3.75±0.85	3.60±0.81	3.86±0.81	3.84±0.86

[†]Independent t-test, *p<0.05

[‡]One-way ANOVA, **p<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녀 간 차이는 의미 있거나, 의미 없는 결과가 혼재하며[6 채인용]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중 목표설정의 항목은 성적이 4.0 이상으로 최상위 학생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희망월급여가 낮은 학생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7년 수행된 연구결과 치과위생사의 초봉은 1,500-1,700만원을 받는 경우가 약 55%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높지

않았으며[16], 이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낮은 급여에 대한 불만족은 업무불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7].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치과위생사의 월 급여에 대한 낮은 현실적 수준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Table 3>.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성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부성적이 평균 4.0 이상인 학생들은 취업준비행동 중 비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 직업탐색에서 나머지 학생들에 비하여 긍정적 차이가 검토되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Table 4〉 Career Identity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ange	Self-unders tanding	Self confidence level	Understand ing the job information
Sex [†]	male	3.69±0.66	3.53±1.31	4.19±0.89
	female	3.49±0.84	3.20±1.26	4.35±0.86
	t	0.93	1.01	-0.70
	p-value	0.29	0.74	0.77
Age(year) [‡]	≤20	3.44±0.75	3.14±1.10	4.18±0.84
	21-23	3.50±0.84	3.25±1.28	4.34±0.87
	≥24	3.56±0.92	3.11±1.39	4.47±0.93
	F	0.16	0.19	0.83
	p-value	0.85	0.83	0.44
Grade(year students) [‡]	3 rd	3.42±0.82	3.24±1.21	4.27±0.85
	4 th	3.59±0.83	3.21±0.12	4.41±0.88
	t	-1.58	0.15	-1.30
	p-value	0.96	0.32	0.69
Credit (point) [‡]	≥4.0	3.72±1.01	3.53±1.51	4.81±0.96
	3.6-3.9	3.51±0.90	3.02±1.30	4.47±0.92
	3.1-3.5	3.52±0.80	3.25±1.26	4.28±0.79
	≤3.0	3.39±0.77	3.25±1.16	4.12±0.86
	F	0.72	0.86	3.50
p-value	0.54	0.46	0.02**	
Expected salary [‡] (10,000won)	≥300	3.42±0.90	3.32±1.54	4.40±1.06
	250-299	3.46±0.72	3.11±1.15	4.24±0.75
	200-249	3.49±0.92	3.42±1.16	4.34±0.81
	≤199	3.66±0.93	3.18±1.40	4.47±1.02
	F	0.77	0.76	0.80
p-value	0.51	0.52	0.50	
Satisfaction in major [‡]	satisfaction	3.20±0.85	2.88±1.36	3.84±0.72
	normal	3.34±0.78	3.08±1.17	4.15±0.79
	dissatisfac tion	3.79±0.81	3.48±1.32	4.69±0.87
	n	9.67	3.59	15.23
F	0.00**	0.03**	0.00**	
p-value	0.00**	0.03**	0.00**	
Total		3.50±0.83	3.23±1.26	4.33±0.87

[†]Independent t-test, *p<0.05

[‡]One-way ANOVA, **p<0.05

〈Table 5〉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Categories	B	SE	t	p-value
(Constant)	2.394	0.516	4.64	<.000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0.771	0.105	7.32	<.0001*
Career Identity	-0.175	0.097	-1.79	0.075
R ² =0.208	F=27.57	p=0.0001		

Multiple linear regression, *p<0.05

일부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가치관과 취업선호도를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

었는데 가장 높은 학점을 가진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하는 세부영역에 대하여 모두 가장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5].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에서 높은 학점의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 답변을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11].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이해, 능력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로 구성되어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의 차이만이 검토되었을 뿐 연구대상의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검토되지 않았다(p<0.05).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이해(3.50±0.83), 능력 자신감(3.23±1.26)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특히, 직업정보의 이해(4.33±0.87)는 높은 수준으로 기록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일부 대학 치위생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국내 치위생학과 학생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생들이 학과만족도에 불만족 하는 부분은(p<0.05) 치위생학과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간호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11]과는 상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심도 깊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사회진출로 모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이를 위한 준비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대학생 평균에 비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고[6 재인용],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취업준비행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진출로의 모색이 필요하며,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긍정적 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방안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직업적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2011 employment trend of dental hygienist. Seoul: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2011.
- [2] H. J. Kim, K. O. Lim, Y. J. Kim, A stud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school subject degree of recognition before admission and satisfactio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6, No. 2, pp. 115-127, 2006.
- [3] E. J. Kim, J. K. Kim, A study of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coping type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8, No. 4, pp. 65-77, 2008.
- [4] J. Y. Kim, G. O. Jung, A study on satisfaction of major at the dept. of dental hygiene, and on attitude one's course of employment. *J Korean Society for Hygiene Science*, Vol. 14, No. 2, pp. 117-125, 2008.
- [5] K. M. Kim, Y. R. Jung, H. J. Han, A study on the job values and job prefer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9, No. 2, pp. 1-12, 2009.
- [6] M. O. Kim,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1, pp. 69-90, 2012.
- [7] S. Y. Cho, K. S. Min, Differences and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3, pp. 59-76, 2011.
- [8] J. H. Keu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arental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maturity of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0, No. 7, pp. 59-66, 2012.
- [9] T. Y. Ahn, S. 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n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college students in Busa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6, pp. 21-42, 2013.
- [10] G. P. Ko, M. Y. Sim,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9-38, 2014.
- [11] J. S. Jung, M. J. Jeong, I. Y. Yoo, Original Articles :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27-36, 2014.
- [12] Y. K. Au, D. I. Kim, J. Y. Lee, Y. J. Chung,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7, No. 3, pp. 267-291, 2011.
- [13] U. J. Kim, S. M. Cheon, The effect of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status : Mediated by ego - identity status. *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Vol. 4, No. 1, pp. 147-162, 2001.
- [14] Young-Ran Yoon, A study on effective career-guidance in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2008.
- [15] S. G.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21, No. 3, pp. 1-25, 2008.

[16] S. J. Han, S. M. Lee, M. H. Lim,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7, No. 4, pp. 583-594, 2007.

[17] H. N. Choi, H. S. Bae, Y. S. Cho, Effect of gap between expected job and performed job 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al Hygiene Science, Vol. 11, No. 5, pp. 463-469, 2011.

노 희 진(Noh, Hie Jin)



- 2006년 8월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박사)
- 2008년 7월 : University of Michigan (visiting research fellow)
- 2014년 8월 현재: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임상치위생학, 공중보건학
- E-Mail : nohh14@yonsei.ac.kr

배 성 숙(Bae, Sung Suk)



- 2006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보건학박사)
- 2008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과임상학, 임상치위생학, 감염관리학
- E-Mail : ssbae@hanseo.ac.kr

문 소 정(Mun, So Jung)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 석사)
- 201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연구강사
-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
- E-Mail : sojung77@yonsei.ac.kr